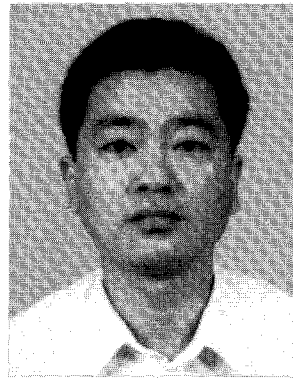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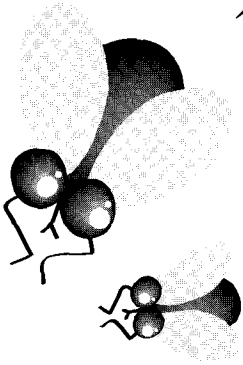


안전성이 고려된 제제를 선택, 사전 예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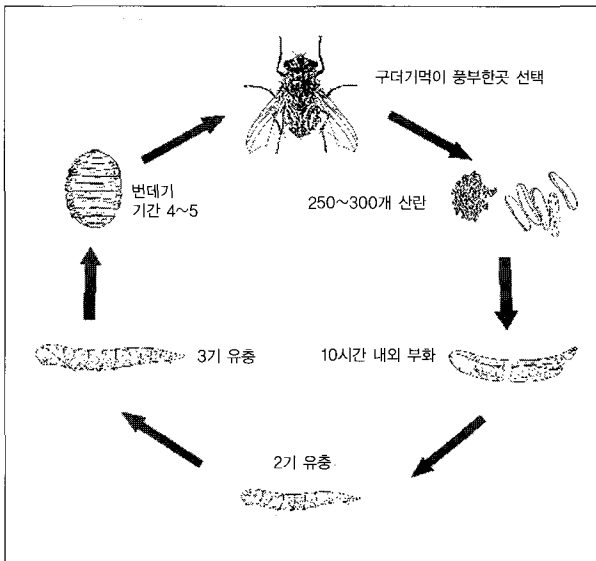


유 종 석 서울사료(주) 부장, 양계PM

2004년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등의 사용기준과 약품의 과다 사용에 따른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배합사료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감축방안에 의하여 매년 약 4월부터 10월까지 양계사료에 첨가하여 사용되어왔던 싸이로마진(파리구제제)이 금년 4월 말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2005년 5월 1일부터는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첨가사용기준에서 삭제됨에 따라 사료회사에서 생산하는 양계사료(산란계, 종계)에는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

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농장에서의 파리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양계사료에 사료첨가용 파리(구더기 구제)구제제인 싸이로마진을 첨가하여 부분적으로 파리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을 덜 수는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료 첨가 금지라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할 경우 금년 여름 파리발생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리라 여겨진다.

파리의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은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란계, 종계농장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양계농장에서는 계분관리, 온도관리면에서 타 축종보다 파리의



〈그림1〉 파리의 생활사 - 습성

발생여건과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로 인한 질병 전파도 문제점이지만 지금 우리의 여건중 가장 힘든 것이 파리로 인한 동네 주민과의 민원, 주민과의 반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농장과 주민과의 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관공서에 민원의 대상으로 삼아 심한 경우 이주 또는 철거를 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게된다.

또한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불확실한 기후로 인하여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예측과 더불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1. 파리의 생활사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생활사를 보면, 성충

에서 알의 과정에서 파리의 알은 습도 90% 이상, 기온 40℃ 이상, 8℃ 이하의 온도에서는 부화전에 죽게되나 우리의 지금 계사(유창, 무창)에서 해당이 될지는 의문시 된다. 파리는 3단계의 구더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계분은 가장 좋은 파리의 번식처이면서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더기는 계분속을 지나다니면서 계분을 뭉개 만들고 암모니아 발생을 촉진시킨다.

파리의 번데기는 파리로 변태하기 좋은 습도와 온도에서 탈피후 파리가 된다. 파리의 성충은 발생후 50%는 3~6일 동안에 죽고, 나머지는 8~10일 이상 생존한다.

2. 온도와 생활사

우리나라의 4월부터 10월까지의 온도 상태를 보았을 때 해당되는 온도를 살펴보면 대략 25~35℃로 예상 했을시 알에서는 0.3~0.7일, 구더기는 3~7일, 번데기는 3~7일, 암파리의 준비기간 2~3일로 가정 했을시 한 주기의 총 소요기간은 8일에서 1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알과 번데기의 과정에서 13℃ 이하에서는 성숙하지 못하거나 죽게되며 특히, 구더기 과정에서 45℃에서 47℃ 이상에서는 죽게 된다. 암파리는 일생중 단한번의 교미로 수차례에 걸쳐서 산란할 수 있는데, 1회 산란시 약 120개 정도의 알을 생산하며산란횟수는 기후와 생활 여건에 따라 1회부터 20여 횟수가 된다. 추운 계절에 동면하는 파리도 있지만 주로 알이나 유충, 번데기 상태로 월동하였다가 봄이되면 성장하여 파리가 되는데 3월 이후 시작하여 11월



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금 4월에 구더기 단계를 거친 파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된다.

3. 파리구제 방안

지난해까지 싸이로마진은 파리의 발생단계중 구더기에 작용하여 성충발생을 막아주는 역할로 그 사용 편리성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5월 1일부터 사료첨가제로 사용금지됨에 따라서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 ① 육성계사나 성계사의 환기를 잘하여 계분 건조를 잘 되게 한다.
- ② 계분치우는 작업을 종전과 다르게 자주 한다.

③ 계분 작업시 전 계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계분장 관리중요).

④ 계사주변 정리 작업실시(잡초제거와 고인물 제거 등)

⑤ 폐계나 파란 등을 신속히 제거

⑥ 사료의 흘림을 방지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파리구제제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고려하고 반드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종류는 많지 않으나 축사 환경을 개선하여 파리를 감소시키게 하는 미생물제를 통한 방법이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파리구제제를 사용시기에 있어서 날씨를 고려하여 빠른시기에 첨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양계**